

# 미학적 개념으로 본 이석태 디자인 분석

## - 2011년 S/S~2013년 S/S 컬렉션을 중심으로 -

이 민 선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요 약

패션은 드라마, 대중가요, 영화 다음으로 한류를 이어갈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 한국의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와 홍보는 한국 패션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이너의 심층 인터뷰와 미학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한국 패션의 위상을 정립하고 해외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글로벌 마켓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러 신진 디자이너 중 한명인 이석태를 선정하여 한국 디자이너 중 한 가지 사례로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석태의 미학은 구조적 아방가르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형식주의, 큐비즘, 구축주의 이론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조적 아방가르드의 탄생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째, 형식주의에서 비롯된 낯설게 보기이다. 일상적인 오브제들에 대한 기의를 삭제하고 기표에 집중함으로써 오브제가 갖고 있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사고 전환의 계기가 이루어진다. 둘째, 큐비즘적 시각과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자세한 관찰을 통해 오브제를 여러 조각의 기하학으로 환원시킨다. 기의를 상실한 기표가 이루는 선들의 형태는 새로운 창조적 세계로 인도한다. 셋째, 구축주의의 원리에 따라 형태, 볼륨, 재료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재구축된다.

주제어: 구조적 아방가르드, 형식주의, 큐비즘, 구축주의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최근 부는 한류 열풍은 한국 패션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제 패션은 드라마, 대중가요, 영화 다음으로 한류를 이어갈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 디자이너들은 세계 무대 데뷔를 꿈꾸며 그 첫발로서 서울패션위크 진출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바이어들 구성도 다양해져서 중동, 중국, 홍콩 등 아시아는 물론 유럽, 미국계가 가세하면서 2013년 춘계 서울 패션 위크의 바이잉 실적은 300만달러에 달하였다.<sup>1)</sup> 앞으로 이수치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신진 디자이너들에 대한 연구와 홍보는 한국 패션을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신진 디자이너에 대한 소개는 신문 또는 잡지의 기사나 블로거 등 인터넷 자료 등에 국한 되어 있고, 각 시즌에 해당되는 단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학술 논문 분야에서 다루는 주제는 외국 디자이너들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한국 디자이너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에 관한 철학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연구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이너의 심층 인터뷰와 미학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한국 패션의 위상을 정립하고 해외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현재 세계적인 시장을 개척하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 세계에 대한 외적 형식과 내적 의미에 대한 분석이다. 글로벌 마켓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러 신진 디자이너 중 한명인 이석태를 선정하여 한국 디자이너 중 한 가지 사례로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석태는 국내뿐만 아니라 파리, 뉴욕 등 패션의 중심지에서 인정받고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디자이너로 최근 레이메거진 바자 러시아의 영향력 있는 에디티어이자 스트리트 패션의 지존이라 불리는 미라슬로바 듀마 뿐 아니라 레이디 가가가 보낸 관심으로 크게 화제가 된 바있다.<sup>2)</sup>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석태의 디자이너로서의 성장과정, 디자인 전개 과정 및 표현에 대한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신문 및 잡지 기사, 인터넷 자료 뿐만 아니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디자이너로서의 성장 과정, 디자인 전개 과정, 디자인 철학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방법으로는 심층 인터뷰의 방법은 콜렉션에 담긴 내적 의미를 추출할 수 있도록 생애사, 상세한 경험, 의미의 반추 등을 분석해낼 수 있는 총 99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인터뷰시간은 90분 형식으로 2013년 3월부터 1주일 간격으로 세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압구정동 이석태 아트리에에서 진행되었다. 질문순서나 방법 등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시키는 반표준화 면접형태로 진행하였다.

둘째, 이석태의 디자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미학 이론에 대해 고찰하고 이석태 작품을 분석하기 위한 시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석태 작품의 특징을 요약하는 용어인 구조적 아방가르드에 대한 미학적 이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낯설게 하기, 형식주의, 큐비즘, 구축주의 등 관련 사조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석태 작품 세계의 내적 의미를 설명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미학 이론을 근거로 이석태 디자인을 해석하였다. 이론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의 작품 사진을 분석함으로써 이론을 실증하는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적 연구의 대상은 2010년 서울 텐 소울에 선정되고 파리 트라노이에 참가하면서 본격적인 국제적 활동이 시작된 이후 해외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콜렉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진 자료 선정은 이석태와의 심층 인터뷰에서 확인된 디자이너의 콜렉션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2011S/S, 2012F/W, 2013F/W 컬렉션에서 추출하였다.

## II. 이석태와 구조적 아방가르드

### 1. 디자이너로서의 성장과정

이석태는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파리의 스튜디오 베르소와 파리의상조합학고를 졸업하였다. 이후 1997년 7월 중앙디자인 F/W 컬렉션으로 데뷔했다. 그해 9월 KAAL E.SUKTAE를 런칭하였으며 199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패션 위크에 참가하고 있다. 파리 레클레에르, 오프닝 세러모니, 홍콩의 조이스, 러시아의 카라엔코, 독일의 패션클리닉, 일본과 싱가포르에도 진출해있다. 2010, 2011, 2012년 서울 텐 소울에 선정되었으며 2010년 파리 트라노이를 참가를 계기로 글로벌 마켓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석태는 고등학교 때 의상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한국 최초의 디자인 잡지 ‘땃’에 실린 파리 진출 이전의 이신우씨 칼럼을 보면서 세계적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이신우씨는 당시 패션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도시로서 파리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역설하였고, 이신우씨는 파리 진출을 이뤄내면서 이석태의 파리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파리는 옷의 재료는 옷감이고 궁극적인 형태는 인체 위에 입혀졌을 때 완성된다는 옷의 본질에 대한 교육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파리의상조합학

교에서 터득한 철저한 입체재단의 기술과 옷감을 몸에 두르면 옷이 된다는 스튜디오베르소의 유연한 사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옷에 대한 가치는 장차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이석태의 작품 세계에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즉 옷은 디자이너의 생각이 이미지로 전환되고 옷이라는 매체로 표현되는 것인데 이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 무한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오랜 숙련의 과정이 필요했다. 파리의상조합학교는 파리 신진 디자이너 콘테스트와 연계하여 졸업작품 10점을 뽑아 시상하였다. 여기에 선정되면서 그의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가 시작되었다. 이후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수상하였다. 스파의 모체였던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를 통해 많은 선배 디자이너들과 교류하면서 디자이너로서 첫 콜렉션을 치르고 매장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상업적이지 못하다, 한국 문화와 맞지 않다 등의 평가를 받았고 고전했고, 5년 후 결국 사업을 접었다.

이후 가로수길에서 지인들이 청바지 등을 비롯한 그들이 필요한 요구대로 아이템 샘플 제작을 했다. 이 경험은 상업적 감각과 한국 패션 시장의 소비자를 이해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업은 승승장구하였고, 콜렉션에 재기하였다. 그는 현재 파리 레클레에르, 뉴욕의 오프닝 세러모니와 세븐 뉴욕, 이태리의 LVR, SPIGA 2, 홍콩의 조이스, 러시아의 카라엔코, 독일의 패션클리닉, 일본과 싱가포르 등까지 포함해 14개국의 멀티샵 매장에 진출해 있다.

### 2. 디자인 전개과정 및 표현특성

이석태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옷을 통한 소통

이석태는 우연히 TV에서 영국 요리사 제이미 올리브(Jamie Olive)가 진행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보았다. 그는 요리하다가 재료가 없으면 옆집 밭에서 채소

를 뜯어다 만드는 식으로 매우 자유롭게 요리를 했다. 보통 요리프로그램에서 멋진 요리로 상을 차리고 시식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마치는데 그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친구들이 몰려와 요리를 먹으면서 축구를 같이 보며 환호하였다. 이석태는 이 장면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요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사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석태에게 이 방송을 계기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옷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특이하고 독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까 감동할까 즐거워할까 등 소위 소비자를 염두해 준 상업적인 부분 역시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전개시키게 되었다.

## 2) 낮설게 보기

이석태 디자인의 특징은 일상에 스쳐가는 모든 것들을 낮설게 보는 습관의 힘에서 비롯된다. 늘 듣던 음악을 쇼에 활용하고 실생활에서 입는 아이템 예를 들면 한강고수부지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입는 트레이닝 반바지 후드 같은 일상적인 오브제에서 출발하여 오프 꾸뛰르 적으로 표현한다. 일상에서 스쳐가는 찌뿌리 직물도 간과될 수 없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소재를 믹스시켜 역동적인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그의 디자인의 특징을 이룬다.

그의 디자인 목표는 실생활에 밀접한 아이템을 하이엔드적으로 모던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영화, 추억,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작업을 하다가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언제 어디서나 머리 속에는 늘 패션에 관한 생각으로 채움으로써 생활 속에서 늘 디자인을 전개한다.

일상을 남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유연한 사고 방식, 공상과학 영화를 즐기는 생활습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입체재단 기술은 그의 패션세계를 하이엔드화 시키는 힘이다.

## 3) 구조적 아방가르드

이석태의 미학은 구조적 아방가르드라고 불린다. 구조적이고 아방가르드하면서도 너무 어렵지 않고 웨어러블한 디자인으로 인정받고 있다.<sup>3)</sup> 평면적 사고보다 한차원 더 높은 공간적 사고는 그의 창조력의 원천이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잔잔한 감동은 바디를 둘러싼 천을 다루는 그의 손끝을 통해 대중들의 눈에 감지될 수 있는 물리적 실체로서 탄생된다. 그에 대한 전망을 확신하게 하는 것도 그가 가진 공간 지각력과 미적 감각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의 손이 있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로서 천을 3차원적으로 직접 다루면서 디자인을 전개시킨다는 것 그래서 그의 아이디어는 늘 공간 속에서 진화한다는 점은 이미 한차원 높은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태와 정확하게 들어맞는 소재의 선정해 내는 능력 역시 그가 가진 공간지각력과 미적 감각 그리고 직접 그의 손으로 수천벌의 옷을 이루어 온 농축된 입체재단 기술이라는 세바퀴가 중단없이 전진해 이뤄내는 결과이다.

또한 아방가르드라함은 일상을 남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대상과 소통하며, 그 안에 내재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의 유연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대에 천을 두르면서 인체를 부분으로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은 기하학적 패턴들의 조합을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기하학적으로 분해된 조각들은 다양한 소재들로 재단되고 이들이 다시 재구축되면서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구조물로 재확립된다.

## III. 구조적 아방가르드를 설명하기 위한 미학 이론

구조적 분석에 의해 사물을 이화시키고 비일상화시킨다는 면은 형식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형

식주의는 기호학으로 계승된다. 형식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된 낯설게 하기 이론은 내용과 형식이 분리되는 현상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창조 의 시작이다.

큐비즘 역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것이다. 원근법에서 벗어나 부분적인 것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해 보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출발한다. 이러한 부분적 관찰은 해체된 단면을 낳고 이 단면들이 화면들 위에 재구성되면서 공간과 시간적 한계를 뛰어 넘는 오브제를 창조한다.

이석태의 작품 세계는 낯설게 하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고 구조적 분석을 통해 입체로 재단하여 재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구축주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미학으로서 새롭게 발견된 것들의 조화를 통해 역동성을 표현이다.

따라서 형식주의와 낯설게 하기, 큐비즘, 구축주의 등의 이론을 고찰함으로써 이석태 작품 디자인 전개과정 및 표현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1. 형식주의와 낯설게 하기

형식주의란 191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 말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문학비평 운동을 일컫는 이름이다. 이는 또한 1920년대 당시 러시아가 예술의 자율적인 기능·기교·형식을 중요시하던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문학에서의 형식주의는 작품 제작 과정에 있어서 작자의 심리나 직관을 작품 분석에 개입시키지 않는다. 대신 창작과정 그 자체의 재현에 집중하고 기교·예술적 방법, 리듬·운(韻) 등이 작품을 성립시킨다고 본다. 이 같은 문학 작품의 자율성 강조는 큐비즘 회화와 케도를 같이 하는 것이었으며, 내용보다 형식이 문제시되었다. 형식주의는 이같이 내용이 아닌 예술의 기법에 중점을 두었고, 언어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일상 언어와 구별되는 시적 언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며, 산문 분야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

가 적지 않았다. 이후 언어 이외의 다른 문화계열·생활계열·사회계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중반부터 반(反)마르크스주의적이라는 비판과 비난이 거세지면서 러시아 형식주의는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러시아 형식주의는 1930년대 후반 프라하 구조주의에 의해 계승되었고, 1960년대 이후 구조주의와 기호학이 발달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sup>4)</sup>

형식주의, 구조주의, 기호학 등을 통해 맥을 이어 오는 개념은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이다. 이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러시아 형식주의는 이러한 관점을 거부하고 예술적 장치 혹은 기법을 토대로 작품을 분석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낯설게 하기’이다. ‘낯설게 하기’는 말그대로 낯익은 것들을 어떤 장치를 해 그것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생각의 기술이다.<sup>5)</sup> 형식주의자들은 낯설게 하기란 일상적인 재료들은 생활속에서 발견되지만 이를 새로운 인식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sup>6)</sup>이라 하였다. 헤겔의 정신분석은 잘알려져 있는 사실을 바로 잘 아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sup>7)</sup> 사람들의 지각은 일상화되어 자동적이며 습관화된 틀 속에 갇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된 일상적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한 걸음 떨어져서 낯설게 바라볼 때 비로서 낯익은 것들의 새로운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과 사고방식은 매너리즘을 동반하고 조건 반사형 인간을 만들어 낸다. 이는 주체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타의에 의해 이끌려 다니는 무기력한 삶으로 이끈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조우할 때 ‘이런 것’이라고 관습에 의해 규정된 정의에 얽매이는 대신 항상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때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늘 새로운 창조의 차원을 차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sup>8)</sup>

이와같이 형식주의자들의 예술의 목적은 사물을 이화(異化)시키고 비(非)일상화시키는 데 있다는 주장은 구축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sup>9)</sup>

## 2. 큐비즘

큐비즘(cubism)은 20세기 초인 1907년에서 1914년 사이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아방가르드 미술 운동이다. 큐비즘은 큐브(cube)에서 e가 빠지고 미술양식인 이름이 붙어 큐비즘이라고 불리어졌다. 큐브의 사전적 의미는 각, 입방체, 정육면체, 굽은 모양, 각진 모양 등이다. 이는 한글로 입체파, 입체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sup>10)</sup>

피카소나 브라크 등은 물체 구성의 지적인 표현보다는 오히려 물체의 면이나 선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리듬감을 부여하여 새로운 미를 구성하였다.<sup>11)</sup>

이후 세잔의 “자연물의 모든 형은 구형·원추·원통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을 이어받아 전개되었다. 큐비즘은 모든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서 모든 형태는 원기둥, 원추, 구 등 기하학적 도형으로 환원하고 또한 종래의 고정된 단일 시점에서 탈피하여 대상의 다양함을 추구하기 위해 복수시점을 활용한다.<sup>12)</sup> 큐비즘은 공간을 파악함에 있어서 르네상스 원근법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sup>13)</sup>

큐비즘은 분석의 시대를 열었다. 큐비즘 작가들은 병이든 쟁반이든 악기든 간에, 한 물체를 여러 방향에서 본 대상으로서 한 면 위에 나타내었고 결과적으로 일종의 전개도처럼 모든 형상을 분리하려 하였던 것이다. 큐비즘 회화가 보여준 풍부한 조형양식을 통해 대상을 자유롭게 해체하고 재구성을 하는 방식은 결국 대상이 화면으로 옮겨졌을 때 본래의 형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대상을 조각으로 나누며 대상의 인식을 전체적인 형상의 조화를 관찰하기보다 부분적으로 세밀한 관찰을 통해 화가 스스로

재구축을 이름으로써 창조성이 발현된다. 이렇게 입체파 화가들은 대상을 해체된 단면에 화면에 재구성하면서 구성한다는 것이 곧 조형 활동의 본질이라고 믿었다.<sup>14)</sup>

또한 본래의 입체파는 구성물들을 합쳐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부분들로 각 측면으로, 원근법적으로 서로 상이한 모습으로 생성, 시간, 발생, 등을 옮겨가는 시점들의 역동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공간적인 것의 속을 들여온다. 그리하여 입체파는 주로 그것이 보여주는 공간, 시간적인 복합체 때문에 미래파, 영화,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계속 이어지는 예술사적 발전과정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sup>15)</sup>

큐비즘은 그 후 작가들 마다의 자유스런 표현양식으로 발전하여 구성주의나 오르피즘 등으로 나뉘어 계승되었으며, 근대 회화의 출발점이 되었다.<sup>16)</sup> 입체파는 단지 그것이 구조에 대한 분석을 고집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대체로 형식주의와 연결고리를 갖는다.<sup>17)</sup>

큐비즘이 패션에 미친 영향은 단순성, 실용성, 기능성 등 큐비즘의 표현기법 뿐만 아니라, 큐비즘이 사물을 분해시키고 재구성하여 사물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것처럼<sup>18)</sup> 패션에서도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고 형태를 재구성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

## 3. 구축주의

구축주의는 제 1차 세계 대전 후 러시아에서 일어난 예술사조를 일컫는다. 즉 1913년경부터 1920년대 말까지 건축·조각·회화·공예 등 여러 분야에서 전개된 전위적인 추상예술운동으로서 추상도형들을 합리적 구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생산 감각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당시 소련인민위원회는 “대중 속의 예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볼셰비키 혁명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선전 기능을 결합시켰다.<sup>19)</sup>

건축주의 미학은 위계 질서를 파괴하고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것이기도 하며 새로운 것들의 조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주의는 새로운 소련인민사회의 창작에 있어서 문화를 반영하여 위계질서를 파괴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시,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전파되었다. 건축주의는 삶에서 대상들을 바라보는 방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즉 5감각에 의해 감지된 것 외에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주제나 재료들과의 조화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축 조각에서 금속 유리 등 새로운 소재를 낳는 결과를 낳았고 다양한 재료, 구성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리듬감을 통해 역동적인 에너지가 표현된다. 건축주의는 형태 불륨, 재료 세가지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역동성을 원리로 건축주의는 역동성과 논리성은 예술 뿐 아니라 정치 시스템 등 다양한 업무에 적용된다.<sup>20)</sup>

즉 레닌 정권은 1917년 혁명 이후 예술과 산업을 통합하여 사회주의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민중적 예술을 호소하며 “대중 속의 예술”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즉 예술은 선택된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술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1928년부터 1932년까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을 정하고 국가가 주도하여 구성주의 예술가들이 의상과 직물분야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벌이게 되었다.<sup>21)</sup>

러시아에서 발전한 이 구성주의는 서구의 추상주의 미술과 응용예술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건축에 있어서는 기능주의로, 조각·회화에 있어서는 기하학적 추상주의로 이어졌다. 특히 건축·조각에 있어서는 금속, 유리 등 새로운 소재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구성주의 운동은 서구의 건축·조각·회화뿐 아니라 무대예술, 상업디자인 등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바우하우스 운동을 통하여 세계에 전파되었다.<sup>22)</sup>

## IV. 이석태의 디자인 분석

이 장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디자인 전개 과정 및 표현특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앞서 살펴본 형식주의와 낮설게 하기, 큐비즘, 건축주의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의미에 대해 해석하고자 한다.



<그림 1> 2011 S/S collection

2011 S/S 컬렉션의 주제는 “My Star Wars”이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출발점이 되었던 이 컬렉션은 이석태에게 매우 의미있는 컬렉션 중 하나이다. 공상과학 영화를 즐기는 그답게 일상에서 본 영화의 감동은 그의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그리고 일상에서 본 영화 속의 미래를 일상에서 발견하고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리모콘, 자동차의 문, 헤드 라이트 등 현대 생활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 기기들은 분명 미래에 대한 이정표였다. 낮설게하기를 통해 생활 속 재료들은 새로운 인식 영역으로 확장되어 이들 기기들과 소통하기 시작한다. 이 기기들이 갖고 있는 선들은 여성의 몸의 곡선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구조적으로 형태화된다.

커팅 라인들을 이용해서 구조적인 불륨을 형성하고 별들의 색으로 컬러 블로킹을 시도한 컬렉션을 통해 공상 과학 영화 스타워즈를 재탄생시켰다. 일상의 기기들의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해 일상에서 지나쳤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재구축하되 각각의 부분들이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되고 다양한 재질들로 구성되어 다시 재구축됨으로써 역동적인 리듬감을 형성하게 된다. 즉 낮설게 하기에 의해 새로운 인식 영역으로 도입된 일상기기들의 선과 형태는 내용을 상실하고 리듬감과 같은 형식에 치중한 재생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체의 부분들은 각, 입방체, 직육면체, 굽은 모양 등의 인체의 각 부분으로 환원되고 이들은 다시 재구축된다. 재구축되는 과정에서 인체의 각부분으로 환원된 형태는 여성신체의 볼륨과 유기적인 연관을 갖고 이질적인 소재들로 제작되어 역동적인 리듬감을 형성한다.



<그림 2> 2012 F/W collection

2012 F/W 컬렉션에서는 자동차의 경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속도감을 옷으로 표현해보고 싶은 욕구는 빛을 떠올리게 했다고 한다. “빛의 승리”라는 주제로 찬란한 스펙트럼의 색상들을 디테일을 절제한 매니쉬하고 엷지있는 구조 속에 담아 표현했다. 스펙트럼의 개성 넘치는 색상들은 암흑 속으로 흡수되기도하고 백색광을 뿜어내기도 하면서 관중을 압도한다. 울, 개버딘, 실크, 니트, 나일론, 가죽, 코튼 바스켓, 새틴 등 다양한 재료들은 빛을 머금은 성질 또한 다양하다. 블랙, 아이보리를 기본으로 코발트 블루, 와인, 레드, 그린, 쇼킹 핑크, 오렌지로 이루어진 멀티컬러들은 다양한 소재 속

에 내재된 후 빛에 따라 무궁무진한 색채로 변화를 거듭한다. 이질적인 재료들로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되어진 조각들과 이 조각들의 재구축으로 의상은 역동성을 발한다.

일상의 자동차는 낮설게하기를 통해 새로운 인식의 영역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이곳에서 속도, 빛, 스펙트럼, 흡수, 반사 등과 같은 연상 작용에 의해 자동차라는 내용을 상실하고 빛이 가지는 형식의 파편화된 조각들로 거듭나게 된다. 이 조각들은 다양한 재질과 맞물리면서 인체의 굴곡에 따라 큐비즘적 도형으로 환원되고 재구축되면서 역동성을 띠게되며 이는 다시 자동차의 속도로 내용을 환원하게 된다.



<그림 3> 2013 F/W collection

2013 F/W 컬렉션은 이석태만의 힙스터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 대중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패션과 음악 문화를 좇는 지적으로 우월하고 자부심이 강한 힙스터들은 꿀벌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곡선과 직선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석태식으로 부활했다. 오버사이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구조적인 재단에서 느껴지는 모던함으로 자유로운 보헤미언적인 자유로움을 부여했으며, 블랙을 중심으로한 톤온톤을 배경으로 매시 그린, 레드, 카멜 등의 포인트 색 상은 힙스터들의 카리스마를 더했다.

꽃벌들에 대한 낯설게하기는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형태미의 세계로 인도한다. 꽃벌이라는 내용은 상실한 채 직선과 곡선의 형식만 남은 세계는 힙스터와 오버랩되면서 무게감과 카리스마라는 새로운 내용을 부여 받는다. 다촛점 시각은 큐비즘적인 기하학적 형태의 역동감을 부여하고 이는 힙스터들의 보헤미언적 자유로움이라는 내용을 선사한다. 이와같이 벌이 갖고 있는 형식적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벌에 내재한 직선과 곡선에 대한 자세한 관찰로 아름다운 선들을 분리해 내고 재구축함으로써 창조가 시작된다.

뉴욕패션위크에도 참가했다. 이번 컬렉션은 건축에 관한 것이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성경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다. 건축의 구조와 공간의 아름다움 속에서 색다르고 다양한 각도로 바라봄으로써 낯설게 바라보고 세밀한 관찰을 통해 보이지 않는 면들을 재발견하여 기하학적 형태로 하나씩 환원된다. 이러한 조각들은 재구축되면서 3차원 인체를 감싸는 새로운 건축물이 등장하게 된다. 이때 신체와 옷사이의 공간이 형성되고 이로써 사람과 건축 간의 공간이 주는 특별한 다름다움이 옷으로 이동하게 된다. 오버사이즈의 기하학적 형태의 구조적인 옷들은 색채의 조합으로 눈속임을 통하여 신체를 다양하게 변이시키고 이는 역동성을 부여하게 된다.

## V. 결론

이석태의 미학은 구조적 아방가르드로 요약된다. 구조적이라함은 그가 옷이 2차원이 아닌 3차원의 물리적인 존재감을 인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방가르드라함은 일상에서 스쳐가는 오브제들은 그의 광학적 렌즈를 통해 3차원의 아름다운 공간 구조로 재탄생되어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석태의 작품은 형식주의적 특징을 가져 기능, 기교, 형식을 중시한다. 큐비즘적 회화와 같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오브제들이 갖고 있는 의미에서 초월하여 그들에 내재된 형식적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또한 이석태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하이앤드적으로 구별되는 그만의 시적 언어로 재구성된다.

다양한 각도에서 ‘낯설게 하기’를 통하여 일상의 오브제들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이러한 관찰을 통해 오브제들은 여러개의 기하학적 형태의 조각들로 환원된다. 이는 큐비즘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조각들은 다양한 소재들로 재단되고 3차원으로 재



<그림 4> 2013 S/S collection

2013년에는 컨셉코리아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구축된다. 이러한 면에서 이석태의 구조주의는 러시아의 구축주의와 일맥 상통한다.

이석태의 구조적 아방가르드의 탄생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째는 일상을 낫설게 보기이다. 일상적인 오브제들에 대한 기의를 삭제하고 기표에 집중함으로써 오브제가 갖고 있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고 사고 전환의 계기가 이루어진다.

둘째는 대상과 소통하기이다. 기의를 상실한 기표가 이루는 선들의 구성은 새로운 세계이며, 이는 끝없는 환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새로운 선들이 구성하는 세계에 대한 관찰은 공간적 사고와 결합되어 몸을 둘러싸게 될 3차원의 형상으로 거듭난다.

셋째는 드레핑을 통한 하이엔드화이다. 3차원의 인대 위에서 천을 직접 다루는 드레이핑 기술은 천의 드레이프성에 따라 인대의 부분별 모양에 따라 3차원의 형상을 인체 위에 가장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는 최적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데에 주요한 테크닉이 된다. 보잘 것 없는 일상 생활의 오브제들과 패브릭들이 하이엔드로 표현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드레핑을 통한 형태와 재료의 최적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우연하게 부딪치는 소소한 것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상상력의 바다로 출항하는 그는 어김없이 하이엔드 걸작을 길어낸다. 수공예적인 감성과 숙련된 장인들을 점점 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그 자체를 작업의 핵심으로 삼아 일상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포용하여 하이엔드 작업으로 엮어 내는 과정을 매시즌 지속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확신과 철학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 참고문헌

1) 석혜원 (2013. 10. 21.). 서울은 패션 한류의 장, 태극, 중국, 신진 디자이너 서울 상륙, 중앙일보, 자료검색

일 2013. 12. 01.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918631&clcc=olink|article|default](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918631&clcc=olink|article|default)

2) 이세인 (2013. 10. 12.). 2014 S/S 서울패션위크 “레이디가가도 반했다” 실력 승부사 디자이너 이석태, 자료검색일 2013. 12. 24. btnews,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8&c1=08&c2=08&c3=00&nkey=201310112009433&mode=sub\\_view](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8&c1=08&c2=08&c3=00&nkey=201310112009433&mode=sub_view)

3) 위의 글.

4) 두산백과(검색어: 형식주의), 자료검색일 2013. 5. 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785&cid=200000000&categoryId=200003432>

5) 최배석 (2012). 영화의 ‘낯설게 하기’기법연구: 관객의 수용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

6) Erlich, Victor (1970). 러시아 형식주의: 역사와 이론, 박거용 옮김(1983), 서울: 문학과 지성사 p.226.

7) 최배석 (2012). 영화의 ‘낯설게 하기’기법연구: 관객의 수용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9.

8) 김미경 (2013. 12. 3). 3040광장,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9579&yy=2013](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9579&yy=2013)

9) 두산백과(검색어: 형식주의), 자료검색일 2013. 5.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785&cid=200000000&categoryId=200003432>

10) 최예리 (2013).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큐비즘 스타일 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11) 편집부 저(1997). 패션전문자료사전, 서울: 한국사전 연구사, p.69.

12) 최예리. 앞의 책, p.6.

13) 오광수 (1976). 서양현대회화사, 서울: 일지사. p.57.

14) 육태석 (2011). 세잔느의 색채와 형상 분리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8-63.

15) 민영욱 (2011). 현대 전위 미술에 나타난 조형철학의 상징성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8.

16) 편집부 저. 앞의 책, p.69.

17) 민영욱. 앞의 책, p.48.

18) 이은경 (2002). 현대패션디자인에 표현된 큐비즘의 조형적 특성, 대전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p.11.

19) 편집부 저. 앞의 책, p.69.

20) Railing, Patricia (1995). The Idea of Construction as the Creative Principle in Russian Avant-Garde, 『Leonardo』, 28(3), Cambridge: The MIT Press, pp.193-202.

21) 양취경 (2001). 구성주의적 예술의상의 조형적 특성 연구-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학회지, 5(4). p.106

22) 편집부 저. 앞의 책, p.69.

# **An Analysis on E Suktae's Designs from an Aesthetical Perspective**

## **- Focusing on Collections from 2011 S/S to 2013 S/S -**

**Lee, Min Sun**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shion that is being recognized as a new area of the Korean Wave after TV dramas, K-pop and movies. Studying and publicizing the art world of rising Korean designers is becoming a necessary task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fashion.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the status of Korean fashion and use the research as overseas promotional material by thoroughly analyzing the works of Korean designers on the grounds of in-depth interviews with the designers and aesthetical theories. KAAL E Suk-Tae, a designer cutting a conspicuous figure in the global market, was selected among other Korean designers for the research. E Suk-Tae's aesthetics show structural avant-garde. Structural avant-garde can be effectively explained by integrating formalism, cubism, and constructivism. The birth of structural avant-garde goes through the following 3 stages. First, defamiliarization proceeding from formalism. By erasing the signified of the daily objects and concentrating on the significant, the designer breaks away from the stereotype of the object and converts our way of thinking. Second, thorough observation through diverse perspectives like the cubistic point of view, and reverting the object into many geometric pieces. The form of lines made by the significant, which is without the signified, leads to a whole new world. Third, objects converted into cubistic pieces are reconstructed in the correlations between form, volume, and material by following the principles of constructivism.

Key words: structural avant-garde, formalism, cubism, constructivism